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덧없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락하리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12일)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불교기후행동 출범 後 세미나·실천법석 증가

기획 특집
기후재앙 시대, 불교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인식확산·대안모색 위한 법석
코로나 주제 학술대회 발제서
기후위기 극복대안 모색 눈길
거리캠페인·기후학교 운영도

천태종 (사)생명존중환경포럼
10월31일 세미나 열고 첫 행보

국제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최근, 불교계에서도 환경보호를 넘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불교기후행동이 공식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올 10월경 불교계 학술단체와 사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공론화해 불교적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올 10월 급증한 여러 학술대회와 세미나, 각 단체들이 진행 중인 실천법석들이 대표적이다.

변화의 기폭제는 6월 15일 불교기후행동의 출범으로 분석된다. 국제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한국불교계 지부 형태로 발족해 현재 전국 70여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불교기후행동은 △기후위기비상선언의 전국확산 △기후위기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결집·조직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지원활동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생명존중사상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을 선언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 본부와 광주전남·울산· 전북지부를 기반으로 '기후학교' 운영을 통한 인식교육에 나섰고 각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캠페인을 통해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9월 22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이 공식 발표됐다. 환경부와 불교 등 5대 종교인들은 '대화마당'을 통해 각 종교별 환경교육 현황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등 향후 기후위기와 관련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선포했다.

이 같은 활동들이 인식확산을 위한 실천적 형태라면, 이론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은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가 10월 15일 개최한 제10회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대응과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포로나시대 불교환경의 현황과 대응'을 발제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이병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치와 기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토대로 불교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내놔 주목된다. 이 교수는 환경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이 무궁무진함에도, 현실적인 적응과 실천의 부족으로 사회적·시대적 사업으로 지속·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시대에 맞는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불교환경선언' 발표 및 '불교화경지침서' 제작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6일 오대산 문화포럼의 사전행사 일환으로 녹색미래를 향한 인류의 길을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좌담회는 주지 정념 스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앙기 평창군수, 조정래 작가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이 연사로 참석해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도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백산환경포럼)'의 명칭을 '(사)생명존중 환경포럼(이사장 무원)'으로 변경했으며, 그 첫 행보로 'STOP 1.5℃'를 주제로 한 지구기후위기 세미나를 10월 31일 오후 1시 대전광수사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구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주제로 발제한다.

〈관련기획 A3〉



제주 4·3사건 희생자 넋 기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대표자 스님들이 10월 20일 제주 4·3공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재를 봉행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원행 스님이 영단에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조계종 내년 예산 10% 감액 '긴축재정'

19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보고
일반 269억·특별 643억원 편성
종단의 목적 불사에만 예산 투입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파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가량 감액돼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원행)는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69억 6200여 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억 2000여 만원이 줄었다. 이는 세입부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특별·법인분담금 10%·직영분담금 5%·직할분담금 7.78%가 감액되고, 각종 희사금이 줄며 나타난 결과다. 이에 따라 종단 홍보를 비롯한 불교문화·미술·음악 진흥, 포교단체지원 등 지원사업들의 예산과 기관 운영·관리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특별회계 예산도 축소됐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643억 4800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5억 8500여 만원(-15.26%)이 축소·편성됐다. 예산은 줄었지만, △인도 분황사 건립(51억원) △계룡대 홍제사 건립(30억원) △불교요양원 설계(3억원) 등 종단 목적불사에는 예산을 예정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구본사에서 요청한대로 사찰등급 조정을 1년 유예했다"면서 "이 같은 세입 여건을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각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에 대비 약 10% 감액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종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목적불사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단의 목적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특별회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 연다

10월 29일 조계사서… 특별전형 합격자 대상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종사·명덕 법계' 및 '대덕·혜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한다.

'종사·명덕 법계 품서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특별전형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대덕·혜덕 법계 품서식'은 오후1시에 교육원에 실시한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계 품서식에서 지급되는 종단통일 가사 제작비는 종단에서 지급하며, 법계를 품서 받는 스님은 가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품서식 당일에는 가사(종덕·현덕/중덕·정덕)와 장삼, 인감이 날인된 자필 유언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 2020년도 승려 정기분한신고에서 제출한 스님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품서식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법계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 품서가 유예된다.

신성민 기자



만행결사 특집 B면 섹션 B1~8

2020 온라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명상웹컨퍼런스

끌어안음

팬데믹 시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의 진수를 만나는 시간
온라인으로 만나는 세계 불교의 교학과 수행

컨퍼런스 참가신청
바로가기 QR코드

한국불교 수행 11월 5일
현봉 스님 조계총림 방장
금강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명법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위빠사나 수행(남방불교) 11월 6일
파욱사야도 미얀마 파욱센터 큰스님
일묵 스님 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서구 마음챙김 수행과 뇌과학 11월 7일
릭 핸슨 Rick Hanson 신경심리학자 & 명상지도자
타라 브랙 Tara Brach 세계적 심리학자 & 불교명상가

티베트 불교 수행 11월 8일
달라이라마 Dalai Lama (여는 인사)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Yongey Mingyur Rinpoche
청전 스님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 첫 제자
소남 스님 한국티베트불교사원 광성사 주지
남카 스님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원장

본방송 2020. 11. 5(목) — 11. 8(일)
재방송 2020. 11. 12(목) — 11. 15(일)
*본방송 참가 시 재방송 시청 가능

참가비 >
1일권 30,000원
4일권 100,000원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참조 www.bexpo.kr
11월 4일(수) 18시 신청마감

문의 >
Tel 02-2231-2013
E-mail bexpo@daum.net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문화재정 Hansol 한솔PNS